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점심은 임문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점심은 '가정의 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3.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대표기도는 유중열 장로님입니다.
4. 2024년 '필리핀 보홀 단기선교'가 7월 8일(월)~13일(토)까지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관심과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5. 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하늘문교회 전도팀'에 함께 참여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날짜	6월 23일	6월 30일	7월 7일	7월 14일
담당	김수환 장로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윤형근 장로
예배기도(2부)	김수환 장로	유중열 장로	김윤식 장로	윤형근 장로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식사담당	임문희 권사 가정	가정의 주일	필리핀 단기선교팀 파송예배	이은설 권사 가정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 환우들을 위해서
3.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십티(함안), 예수교회(대구), 두리원(장애인 복지시설)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김 ■ 부목사: 구은세 ■ 협동목사: 김전희 ■ 전도사: 박일선, 김진규  
 는이 ■ 시무장로: 유중열, 박성근 ■ 협동장로: 김윤식, 윤형근 ■ 은퇴장로: 신태식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김성환장로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명기 30장 8, 11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김전희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신재준 집사	다같이
여는기도	인도자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시 77:1-9	김전희 목사
말씀선포	‘주여, 우린 연합합니다’	김전희 목사
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찬송	365장	다같이
축도	김전희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사복음서 강해 마 18:15-20 ‘두 세 사람이 있는 곳에’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하늘문인만> 말씀묵상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삶으로 빚어낸 이야기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를 피할 요량으로 하루 종일 실내서 머물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오기와라 히로시의 단편소설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를 읽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외딴 시골 언덕에 있는 이발소를 찾은 주인공 ‘나’에게 이발사가 머리를 깎아 주면서 들려주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이발사는 가업을 이어 받아 이발소를 배웁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떤 부류의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 수준에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서비스라고 여겼습니다. 이발사는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배운 셈입니다.

누군가 역사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란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역사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조, 기능, 실증, 원인이 무엇이고 그 결과는 또 어떤가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사건적 서술만으로 시험을 치룰까요? 그래서 사실을 근거한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는 역사를 알 수 없다고까지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보통 허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참된 시대적 진실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 사실보다 그 사실을 뒷바침하는, 그 시대를 살아낸 인생들의 삶이 훨씬 더 많은 역사의 진실이 담겨 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에는 누구나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역할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역할을 찾아서 살 때에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쟁에서 계속 이겼을 때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복과 성공은 경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으로 얻은 행복과 성공은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어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해질 뿐입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인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인(聖人)으로서의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빚어낸 탄탄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모여 일생이 되고, 또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 하루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자신이 써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이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소설보다 더한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의 평범해 보이는 이발사의 일생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것처럼, 누구나 그 삶을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사연과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서 우리는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Written by 허영진